



잣나무 / *Pinus koraiensis* Siebold & Zucc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소나무속
과국명	소나무과
과명	Pinaceae

<p>일반특징</p>	<p>요약설명 : 소나무과 상록 침엽 교목으로 전국에 걸쳐 해발 100~1900m사이에서 볼 수 있다. 주로 평안북도와 함경도 오지에 많으며 경기도 가평과 양주, 강원도 홍천에서 나타난다. 일본과 중국, 시베리아 등지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한국, 일본과 중국, 시베리아 등지에도 분포한다.</p> <p>형태 : 상록 침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30m, 지름 1m.</p> <p>꽃색 : 노란색,붉은색</p> <p>개화기 : 5월</p> <p>잎은 바늘 모양이고 5개씩 모여나며 3개의 모가 진 선이 있다. 양면에 하얀색 숨구멍 선이 5~6줄 있으며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다.</p> <p>꽃은 5월에 피며,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. 수꽃은 5~6개의 수꽃차례가 새가지 밑에서 달리고, 암꽃은 2~5개의 암꽃차례가 가지 끝에 달린다. 암꽃은 녹색으로 피고 수꽃은 루비처럼 붉은색으로 핀다.</p> <p>열매는 구과이고 긴 달걀 모양 또는 원통 같은 달걀 모양이다. 열매조각 끝이 길게 자라서 뒤로 젖혀진다. 씨앗은 일그러진 삼각형, 긴 달걀 모양 또는 달걀 모양이고, 날개가 없다. 또한 양면에 얇은 막이 발달해 있으며 먹을 수 있다. 다음 해 9월에 익으며 열매조각 하나에서 한 개의 잣이 나온다. 그러므로 구과 하나에는 약 100개의 잣이 생산된다.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류 중에서 구과가 제일 크다. 나무를 심고 약 20년이 지나야 솔방울이 달린다. 나무껍질은 암갈색이고 불규칙한 조각의 껍질이 있다. 어린 가지에는 잔털이 있다. 재질이 좋으며 나무의 안쪽 부분이 연한 홍색을 띤다. 원뿌리, 잔뿌리 모두 왕성하다.</p> <p>잣나무는 추위를 좋아하며 높은 산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. 바닷가 지방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잘 자란다. 땅힘이 좋은 곳은 잘 자라지만, 좋지 않고 건조한 곳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. 따라서 땅이 깊고 기름진 해발 1000m 이상의 산기슭 및 산허리를 선택하여야 한다. 어릴 때에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성장하면서는 햇볕이 많이 필요하다.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크면서 점점 빨리 자란다. 씨앗으로 번식시킨다. 잣나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땅에 적합한 대표적인 나무이다. 소나무의 안쪽 부분이 하얀색을 띠는 데 반해 잣나무는 붉은색을 띠므로 홍송이라 불린다. 또한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달려있는 2엽송인데 반하여 잣나무는 5개씩 달려있는 5엽송이다.</p>
-------------	--